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탐사보도 콘테스트

수상작 모음집



임금

"청년들이 희망하는 최저임금은 얼마이며, 그것의 기준 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거

"청년들을 위한 주거정책, 본인의 주변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평가는?"

교육

"자사고 폐지에 관해 본인의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며 본인의 평가는?"

3 Round : 교육

**“자사고 폐지,
본인의 주변에서는
어떤 반응이며,
본인의 평가는?”**

"학생 중심 교육 VS 상위권 대학 진학의 관문"

- 교육의 다양성이 아닌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해서만 기능 vs 일반고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학습, 교육 기회 제공.
- 자사고, 외고의 높은 등록금이 사회 계층을 공고히 할 수도 vs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사회 계층 문제를 학교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지난달 전국 시, 도 교육청의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가 발표된 후, '자사고 폐지'를 두고 찬반양론이 격화되고 있다.

지난 13일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탈락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개교가 교육청이 결정에 반발해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지만, 교육부 측은 기존의 '자사고, 외고 단계적 폐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가 학생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며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자사고 폐지를 반기는 반면 교육의 다양성 측면에서 자사고가 필요하다고 자사고 폐지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다면 과연 실제 교육 현장에서 자사고와 일반고의 교육을 경험해본 대학생들이 같은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자사고, 외고를 졸업한 2명의 대학생과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생 2명을 만나 각각의 의견을 듣고 개인적인 대안까지 제시해보았다.

A(24 부산대학교 경제학과) - 부산 센텀고(일반고) 졸업

고등학교 진학 당시 외고 자사고 진학을 희망했지만 높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했다. 이처럼 일반고보다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에 유리한 자사고, 외고를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학생 개인의 학구열과 학업 능력 외에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까지 요구된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학업에 대한 충분한 재능과 열정이 있어도 자사고, 외고의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은 일반고에 진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고에 진학한다고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같은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자사고, 외고 학생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결국 일정한 경제적 수준이 되는 가정의 학생들만 자사고, 외고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부의 세습을 고착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B(24 성균관대 교육학과)씨 - 서울 영덕외고 졸업

자사고, 외고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계층 간 교육 차별을 심화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학 비율을 높이거나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자사고, 외고 폐지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된 자사고, 외고를 폐지하게 되면 더 나은 학군과 교육을 위해 서울 혹은 강남 3구와 같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 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지역 격차와 더 큰 교육 기회의 제한을 야기 할 것이다.

현재 사회 구조에서 우리나라의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진학에 큰 관심과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의 문제이지, 그 화살을 다양성을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 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사고와 외고에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C(26 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씨 - 서울 구일고(일반고) 졸업

현재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학생들의 더 나은 대입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시 자사고, 외고 진학을 고려했었는데, 당시 진학하고 싶었던 이유는 자사고, 외고를 진학하면 상위권 대학 합격의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니였고 주변 친구들의 생각 역시 비슷했다.

외고를 졸업한 한 대학 동기는 고교 시절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어 수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수능에 집중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자사고, 외고의 교육은 기존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는 생각이다.

D(24 성균관대 교육학과)씨 - 서울 명덕외고 졸업

자사고나 외고가 본래 설립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문이 든다.

명문대 진학이 내가 외고로 진학한 이유는 아니었다. 내가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당시 외고에 진학한 이유는 학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사교육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전무하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거나 이를 발판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어 하는 학생들에게 외고 진학은 사교육 없이 외국어를 교육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외고에서 수능이나 대학 진학보다 외국어 습득에 집중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다. 그렇게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은 친구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자사고와 괴고는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이 원 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은 맹목적인 대학 진학과는 거리가 멀다. 모의고사나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문제 풀이식의 수업을 주로 하지만, 자사고 및 외고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춘 만큼 다양한 수업 방식의 시도가 가능하다.

외고의 외국어 수업을 예로 들면, 우선 외국어를 배우는 시수가 많다. 또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수업보다는 원어민 교사와 학생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수업도 많다.

이처럼 외고의 수업은 일반고에 비해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토대가 갖춰져 있는데, 오히려 자사고, 외고 폐지로 인해서 일반고 중심의 획일화된 공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필자의 제언

이처럼 자사고, 외고를 경험한 현재 대학생들에게서도 입장의 차이가 다양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자사고 외고의 설립 취지에 맞게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상위권 대학의 관문이 아닌 본연의 역할을 다 해줄 때에 존재의 가치가 있

을 것이며 일반고 또한 자사고에서의 교육 도전에서 성공사례들을 뽑아 계속해서 발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의 지원으로 자사고, 외고의 직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없도록 등록금 인하, 장학금 혜택 같은 기회들이 많아져야 할 것이다.

각자의 역할과 설립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간다면 보다 좋은 고등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19. 9. 27.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이현종

자사고 폐지? 정답을 찾자!

- 자사고 교육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
- 일반고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학습·교육 기회 제공.
- 자사고의 높은 등록금이 사회 계층을 공고히 할 수도 있다.
- 대학 서열화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학교에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라 불리는 국정과제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의하여 발전되었다. 개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의거하여 사립학교의 건학이념에 따라 교육과정, 학사운영 등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학교별로 다양하고 개성있는 교육과정을 실시하는 고등학교이다. 모집구분은 전기이기 때문에 특수목적고등학교와 같은 전기고등학교(前期高等學校)와는 중복해서 지원할 수 없다. 입학 전형은 대체적으로 중학교 내신성적을 일부 반영한 추첨 방식과 필기고사를 제외한 자기주도학습전형으로 나뉘며, 2010년 12월 기준 50개교가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되었다. 기존의 자립형 사립고보다 학교의 자율성을 더 확대, 발전시킨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는 의무적으로 모집인원의 20%를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선발하여야 하며, 재단은 법인전입금을 도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3% 이상, 특별시·광역시 소재 사립고등학교의 경우 5% 이상 출원해야 한다. 경기도에서만 예외적으로 광역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인전입금 5% 이상 출원하여야 한다. 선발은 광역단위 모집이 원칙이나, 법인전입금을 20% 이상 출원하면, 전국단위 모집이 가능하다.

또한, 경상남도, 충청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는 자율형 사립고로 지정된 학교가 없기 때문에 이 지역 학생들은 전국 자율형 사립고 어디에든 지원할 수 있다. 지나친 입시 위주 교육과 상위권 학생 독식 현상으로 인해 고교서열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자사고에 대한 교육부의 관리·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사고 학교법인은 입학금과 수업료의 3% 또는 5% 이상 금액을 매년 학교로 전입해야 하지만, 서울지역 27개 중 4개 학교는 재단전입금을 전혀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래 영미권의 사립학교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기본이나, 한국의 경우에는 재정적 문제로 인하여 정부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공립학교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교육당국의 개입을 받으면서 운영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립학교에 영미권 사립학교처럼 자율성을 보다 많이 보장해줌과 동시에 정부에서의 재정지원

은 줄이고 학생들로부터 직접 학비를 받아 운영하도록 한 학교이다.

A(26·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씨, 서울 구일고(일반고) 졸업한 학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현재 자사고는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가지고 다양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초기의 목적과는 달리, 학생들의 더 나은 대입 실적을 위한 수단으로써 기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개인적으로 고등학교 진학 시 자사고/외고 진학을 고려했었는데, 당시 진학하고 싶었던 이유는 자사고와 외고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을 누리고 싶었다기보다 자사고와 외고를 진학하면 상위권 대학 합격의 가능성이 더 클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나만의 생각이 아니었고 주변 친구들의 생각 역시 비슷했다. 외고를 졸업한 한 대학 동기는 고교 시절 대학 진학을 위해 학교에서 배우는 외국어 수업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포기’하고 수능에 집중했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재 자사고와 외고의 교육은 기존의 설립 취지와는 달리 상위권 대학 진학을 위한 것으로 변질됐다는 생각이다.”

B(24·성균관대 교육학과)씨, 서울 명덕외고 졸업한 학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사고나 외고가 본래 설립 취지와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의문이 든다. 명문대 진학이 내가 외고로 진학한 이유는 아니었다. 내가 고등학교 진학을 결정할 당시 외고에 진학한 이유는 학교 교육을 통해 새로운 언어를 배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기 때문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영어 이외의 언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기회는 사교육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전무하다.

따라서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있거나 이를 발판으로 더 넓은 세계로 나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외고 진학은 사교육 없이 외국어를 교육받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외고에서 수능이나 대학 진학보다 외국어 습득에 집중하는 학생들도 많이 봤다. 그렇게 습득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를 찾은 친구들도 많았다.

무엇보다 자사고와 외고는 그 설립 목적에 맞게 교육 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학생들이 원하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이나 동아리 활동은 맹목적인 대학 진학과는 거리가 멀다. 모의고사나 수능 고득점을 위해서는 주입식 교육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반고에서는

문제풀이식 수업을 주로 하지만, 자사고 및 외고는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갖춘 만큼 다양한 수업 방식의 시도가 가능하다.

외고의 외국어 수업을 예로 들면, 우선 외국어를 배우는 시수가 많다. 또 단순히 언어를 배우는 수업보다는 원어민 교사와 학생이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하며 다양한 문화를 접할 수 있는 수업도 많다.

이처럼 외고의 수업은 일반고에 비해 학생과 교사가 수업을 통해 학생에게 맞는 교육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토대가 갖춰져 있는데, 오히려 자사고?외고 폐지로 인해서 일반고 중심의 획일화된 공교육이 확대되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C(23·성균관대 국어국문학과)씨, 대구 대건고(자사고) 졸업한 학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사고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모두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성격인데, 자사고 진학을 통해 비슷한 꿈을 가진 친구들을 만나 좋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과 잘 조성된 면학 분위기에 속해 경쟁하며 나를 더 발전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반대로 일반고보다 과열된 경쟁 속에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부작용도 있었다. 또 자사고에서 학업과 관련된 교육 이외에도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에 위한 스펙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대학 진학과 관련 없이 순수하게 학생의 자율적인 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D(24·부산대학교 경제학과)씨, 부산 센텀고(일반고) 졸업한 학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고등학교 진학 당시 외고와 자사고 진학을 희망했지만 높은 학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포기했다. 이처럼 일반고보다 상대적으로 대학 진학에 유리한 자사고와 외고를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학생 개인의 학구열과 학업 능력 외에 높은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의 경제적 형편까지 요구된다는 점은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결국 학업에 대한 충분한 재능과 열정이 있어도 자사고와 외고의 비싼 학비를 감당할 수 없는 학생은 일반고에 진학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물론 일반고에 진학한다고 해서 명문대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같은 능력을 갖춘 학생이라면 자사고와 외고 학생보다 일반고 학생이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나.

결국 일정한 경제적 수준이 되는 가정의 학생들만 자사고와 외고에 진학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사고가 우리 사회에서 부의 세습을 고착화하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B(24·성균관대 교육학과)씨, 서울 명덕외고 졸업한 학생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자사고와 외고가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계층 간 교육 차별을 심화한다는 말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입학 비율을 높이거나 등록금을 인하하는 등 자사고와 외고 폐지 외의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된 자사고와 외고를 폐지하게 되면 더 나은 학군과 교육을 위해 서울 혹은 강남 3구 같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높은 지역으로의 쏠림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는 지역 격차와 더 큰 교육 기회의 제한을 야기할 것이다.

현재 사회 구조에서 우리나라의 학생과 학부모는 대학 진학에 큰 관심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주의의 문제이지, 그 화살을 다양성을 추구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이나 흥미에 맞춘 교육을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자사고와 외고에 돌리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자사고와 외고의 문제보다는 높은 등록금으로 사회계층의 갈등을 유발하는 제도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일반고 수준의 등록금을 입학할 수 있는 자사고는 없다는 것이 이런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아닌가 싶다.

“개천에서 용 난다.” 표현을 자사고와 외고에서는 나올 수가 없다. 저렴한 국립자사고가 만약 존재한다면 그래도 조금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다.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이 자녀를 좋은 환경의 고등학교에 보내고 싶은 마음도 충족시키고 경제적 능력을 뛰어넘어서 정말 영재들이 존재하는 현시점에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고등학교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2019. 9. 23.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성장현

자사고 폐지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나는 인문계 고등학교 나왔다. 내가 인터뷰를 요청한 주변 지인들 역시 인문계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성적에 관심을 가지고 상위권 고등학교를 넘어, 상위권 대학교를 넘보는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에 정보가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관심 밖의 일이다.

실제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이하 자사고)를 준비했지만 떨어진 친구, 희망했지만 성적으로 인해 좌절된 친구, 자사고는 들어봤지만, 자세하게 모르는 친구 등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었다.

나 역시 자사고를 준비해 본 적이 없어 많이 들어보았고, 폐지 찬성 및 반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정확히 모르는 와중에 이번 콘테스트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다.

정XX (24) : 자사고가 설립되고 준비했지만, 정보 부족과 내신 부족으로 탈락했다고 한다. 지원 동기는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을 것 같았고, 부모님의 제안으로 기존의 인문계 수업과는 다른 차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한다.

Q : 자사고의 설립 취지는 다양한 교육의 수요에 있는데 맞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A :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의 외고, 특목고처럼 인문계 고등학교의 상위 학교라 생각되고 상위권 대학교에 진학하기 위한 발판이라 생각된다. 나 역시 그런 생각으로 자사고 입학에 희망했고, 대부분 학생처럼 인문계에 진학했다가 목표 대학을 꿈 꿀수 없을 것 같아 자사고를 희망했다.

Q : 자사고 폐지에 대한 본인 생각은?

A : 반대한다. 취지가 좋은 만큼 본래 취지에 맞게 개편되었으면 좋겠다. 인문계 고등학교, 자사고, 특목고 그리고 외고 등 본인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향의 고등학교로 변화하면 좋겠다. 어느 고등학교를 가야 대학교 진학이 쉽다더라, 유리하다는

등의 정보력 싸움이 아닌 제각기 다른 학생들이 자신의 장점을 찾고 뽐낼 수 있는 교육시스템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이 밖의 자사고 폐지를 찬성한다는 친구는 자사고 및 많은 종류의 고등학교가 학생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준다는 이유에서였다.

2019. 9. 28.

여의도연구원 대학생기자단 박승현



여의도연구원

청년정책센터